

금리인상 압박... '시한폭탄' 1500조 가계빚 어찌나

2013년 4분기 1000조원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500조원 불어나

국내 금리인상이 압박함에 따라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소득 증가세는 더디기만 하고 국내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상환부담 가중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가계부채 문제가 민간소비 위축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빚은 올 3분기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

다.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에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22조원(1.5%) 증가한 151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4분기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50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다만 가계빚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7%로 지난 2014년 4분기(6.5%) 이후 3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각종 대출 억제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문제는 가계 소득이 빚보다 느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 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4.5%로

가계빚 증가세에 크게 못미쳤다. 최근 추진된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도 4.9%로 여전히 낮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기준 161.1%를 넘어섰다. 1년간 처분할 수 있는 돈으로 빚을 다 갚아도 모자란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출금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일만 남아있다. 당장 30일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앞으로 2~3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국내 대출금리는 따라 오를 가

능성이 높다.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최고 5%대에 육박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를 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부담만 가중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빚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될 우려가 크다.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 규모는 지난 2분기 기준 85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말(73조5000억원)에 비해 11조 6000억원 불어난 상황이다. 취약계층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 7~10 등급)에 속해있는 차주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인상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분석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는 1.6%p 오르는 데에 비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는 5.8%p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미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상당 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가계부채 총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자부담이 가계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창업자간 정보교류 '성공창업 ON 한마당' 열어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전북지역 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간 정보교류,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공창업 ON 한마당' 행사를 지난 21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은창업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창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창업, 별이 뜨다'란 주제로 우수창업자, 창업유공자 표창, 창업자들의 상품 전시, 홍보, 체험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본 행사를 통해 기업가의 기본 소양, 지식함양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기업 성장 동력을 창출, 창업자 간 정보공유, 판매연계, 공동구매 등 상호 발전관계를 구축, 경영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참석자는 "예비창업자와 선배창업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업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해외바이어 검색부터 신용조사까지 한번에

전북중기청, 전세계 1억개 이상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제공 발굴된 바이어와 수출 진행 위해 필요한 컨설팅 병행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이 지역기업들이 해외바이어 정보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 정보 검색서비스와 발굴된 바이어와 수출거래 성사를 돕기 위한 '해외바이어신용조사 서비스'를 오늘부터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지역최초로 시행하는 '해외바이어정보 검색서비스'는 기업정보보유량 업계 1위인 D&B사와 협약, 기업들이 정책지원을 받아 바이어DB를 전문수행 사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아 오던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에서 탈피했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검색플랫폼(후버스, Hoover's)을 활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지역중소기업들이 수출확대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던 바이어정보

획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바이어 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출을 진행코자 할 때 기업 요청 시 전북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수출지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컨설팅도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바이어의 신용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수출성사, 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외바이어 정보검색서비스, 해외바이어신용조사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성회준 063-210-64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0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펼쳐진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 행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도 사회공헌 공로 표창패 받아

나눔문화 확산·지역사회 복지증진 이바지한 공로 인정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0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펼쳐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 행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8년 사회공헌 연간 Plan'을 수립하여 이웃들을 안아주고, 품

어주는 따뜻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반기에는 1월 '사랑의 쌀 전달, 배식봉사'를 시작으로 사랑의 빵 나누기, 헌혈행사, 일일호국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촌지역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 '매직테니스 캠프' 최근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하는 등 2018년 한 해 동안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 140여명이 700시간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의 자부심으로 지역을 지키고 도민을 따뜻하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민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남원여고서 인문학 강좌 열어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0일 남원여자고등학교에서 제21회 '2018 JB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날 강좌는 남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200여명을 대상, '아리랑 청년, 세계를 달린다'의 저자이자 아리랑 유랑단을 이끌고 있는 문현우 대표를 초청, '문화로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아리랑을 지키자'라는 일념으

로 문 대표가 창립한 '아리랑 유랑단'은 민간 문화외교 사절단으로 국악을 가르치는 아리랑 스쿨도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무일푼이었던 대학시절 직접 발로 뛰며 1억원의 금액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 받아 세계 각국을 돌며 우리 문화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문 대표는 아리랑을 통해 보았던 희망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